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회장, 그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 그가 6월 7일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지 34년 만에 명예 졸업장과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장에서 행한 그의 연설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내년부터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나, 2000년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구상에 만연하는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퇴치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한다. 빌 게이츠가 누구인가? 그는 올해로 11번째 연속 미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그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세계의 불평등을 없애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은, 광범한 기업인으로서의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결단이다.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행한 그의 연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과연 '위대한 개인'임에 틀림없다. 세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내세운 방안이 이른바 '창조적 자본주의'

사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바로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불평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세상의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위대한' 발상을 경의를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의 표를 지킬 수 없다. 인류가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한 이래 부당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부(富)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무한 경쟁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이나 국가는 가차 없이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 등의 방안이 고안되었지만, 지금도 지구상에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 즉 창조적 자본주의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가

있다면 아마 칼 마르크스를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부(富)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결과라면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을 자본주의 밖에서 찾을 법도 하다. '자본주의는 영원한 체제인가? 과연 자본주의의 인류가 고안한 최고(至善)의 체제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테라사 수녀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만 으레 나타나는 구세군의 자선남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투자하는 대기업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걸인에게 돈 한 톨 던져준다고 걸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가 흑사라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의 낭만적인 발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창조적 자본주의

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이 일을 기업이 하자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의 추구가 유일 최대의 목표이다. 만일 기업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려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펼칠 사업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가 '창조적 자본주의'로 이 세계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면 아마 칼 마르크스를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부(富)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결과라면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을 자본주의 밖에서 찾을 법도 하다. '자본주의는 영원한 체제인가? 과연 자본주의의 인류가 고안한 최고(至善)의 체제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세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테라사 수녀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만 으레 나타나는 구세군의 자선남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투자하는 대기업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걸인에게 돈 한 톨 던져준다고 걸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가 흑사라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의 낭만적인 발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대 못미친 민선 4기 1년 자치 성적표

민선 지방자치 제 4기가 출범한 지 지난 1일로 1년을 맞았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민선 4기는 그동안 10년 이상... 기대 못미친 민선 4기 1년 자치 성적표

과 선거로 날이 섰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방의회라고 사정이 나는 것은 아니다. 유급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했으나 곳곳에서 주도권과 자리를 돌려 싸고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지역민의 부담을 지버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6명의 지방의원들이 1년도 채 못돼 물러났다. 지방의원들의 지지부진한 입법활동은 유급제 실시가 무색할 정도다. 민선 4기를 현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민선 자치의 과정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이 혼들리면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선자치가 정착하려면 선출직 공직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만큼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해외유학·연수까지 '돈잔치'라니

한 회사에서 한 해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직원이 해외유학과 국내의 연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기본급과 상여금 등 봉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연간 5천만~6천만원의 유학·연수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에 이렇게 돈을 광탈 켜져 되는 것일까. 다름아닌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 실상이다. 일반 사기업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공기업에선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 직원들의 해외유학과 국내의 연수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와 사대에 전문지식을 쌓고 전문을 넓히기 위해선 유학과 연수는 필수적이며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데 있다.

상당수 공기업에선 해마다 수십명의 직원이 석사 및 박사학위 등을 위해 장기 해외유학과 국내로 나서고 있다. 한 공기업은 전체 직원의 8%가 넘는 인원을 유학과 국내의 연수에 보내고 있다. 어떤 공기업은 해외로 나가는 직원이 너무 많아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유학기간에 봉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상여금에 별도의 비용까지 지원받고 있다. 당연히 호봉도 인상된다. 유학경비를 스스로 충당하거나 유학기간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기업 직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상당수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돈 잔치'를 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유학과 국내의 연수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직장'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비아냥이 확산되고 있겠는가. 공기업은 무분별한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즉시 자체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 프로야구가 따라잡거나 넘어야 할 목표, 즉 경쟁해서 이겨야 할 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일본 야구, 미국 야구, 한국 야구, 모두가 아니다. 영웅 하계도 영화 '괴물'이 프로야구의 라이벌로 등장한다. 요즘 한국 프로야구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SK 와이번스의 신영철 사장은 잡아야 할 목표로 괴물을 꼽았다. 신 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즐김만한 스포츠라고는 오직 야구밖에 없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민들이 다양한 레저, 취미활동을 하고 있어 야구도 그런 문화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괴물은 2시간 상영에 1천300만명이 몰렸는데 한국 프로야구는 올 시즌 겨우 4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을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래서 '괴물 사냥' 시스템으로 고안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포테인먼트(스포츠포+엔터테인먼트)다. 기존의 팬 서비스라 아니라 팬들이 감동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같은 팀 이만수 코치가 팬티바람으로 운동장을 돌아 충격을 주었던 SK의 스포테인먼트는 야구팬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SK는 시즌 절반까지만 24일까지 지난해 관중 33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시즌 40승에 맨 먼저 도달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성근 감독도 스포테인먼트에 앞장 서고 있다. 그는 원래 강성 이미지의 소유자로 '호랑이 감독'으로 불린다. 선수들의 작은 실수도 사정없이 혼을 낸다. 프로야구팀에 국기훈장을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 감독이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해 어린 선수가 감히 어깨에 팔을 걸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 재미와 성적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SK의 스포테인먼트, 스포츠 구단은 물론 기업까지 벤치마킹에 나서야 할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론대부장 kihh@

스포테인먼트



NGO 칼럼

김강렬



'전기 흡혈귀'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소모되는 대기(待機)전력을 말한다.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전기 흡혈귀(power vampire)로 부른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 사무실과 가정 등에서는 더위를 피해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 에너지 낭비는 곧,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지구 환경 파괴를 의미한다. 에너지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이다.

로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홀더 방식'을 제안한다. 키홀더 방식은 키를 넣으면 실내 전원이 들어오고 빼면 전원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예 전기를 차단해 대기전력을 완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정용의 경우 ▲냉장고 등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전선 ▲TV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 차단해도 괜찮은 전선 ▲조명등처럼 아무 때나 사용하는 전선으로 3개의 전기 공급체계를 만든다. 냉장고·밥통·다기능 전화기·수족관 등은 키홀더 방식과 관계없이 항상 전

전기 흡혈귀를 아시나요

하지만 전자제품의 증가와 함께 대기 전력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복사기와 비디오는 전체 사용전력의 80%가 대기전력을 추정된다. 컴퓨터 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세탁기·에어컨·TV·전자레인지·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대기전력 소비가 많다. 국제에너지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가구당 대기 전력은 전력소비량의 10%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구 평균 5%로 낮은 수준이지만 해마다 13억 달러가 대기전력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는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1kWh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32kg이다. 대기 전력을 줄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은

기가 흐르는 전선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 TV·오디오·컴퓨터 등은 키홀더 방식이 작동될 경우에만 전기가 흐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장치에는 항상 전기를 공급하는 전등선을 사용하면 된다. 키홀더 방식으로 차단되는 전선과 콘센트는 색깔을 달리하면 큰 혼선은 없을 것이다. 사용자가 사용 습관에 맞게 자주 쓰는 제품은 항상 전기가 통하는 콘센트를 이용하고, 비교적 덜 사용하는 제품은 키홀더 방식 콘센트에 꼽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기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공 부문의 사무실 등에서 이를 채택한다면 훨씬 많은 양의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 조례를 새롭게 제정, 건축건물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효과를 거둘 것이다. 공공단체에서 이같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가격 싸고 활동 편한 폴로형 T셔츠 고복 나왔으면

맛집이 부부 7년째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 아침에는 정신을 차릴 틈이 없다. 바쁜 시간 쪼개 남편 양복에 입을 와이셔츠 및 셔츠나 되는 중고생 아이들 고복까지 다녀야 한다. 다림질이 필요없는 폴로형 T셔츠나 간단한 남방으로 하면 어떨까. 담당 광주시 중·고등학교에서 추진했으

면 한다. 요즘 교육이 어른 기성복 양복값보다 비싼데 폴로형 티셔츠는 가격도 싸고 색깔도 다양해서 각 학교마다 색깔로 개성을 살려서 입으면 아주 좋을 듯하다. 가정에서도 편하고 학생들도 활동성 뛰어난데다 값도 비싸지 않으니 좋지 않은가. 광주시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나섰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단봉낙타의 회춘. Advertisement for 'Jungchun' (회춘) featuring a camel. Text includes: 회춘(回春)이란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다시 봄이 온다'다. 의역하면 '젊음을 되찾는다'라는 정도일 것이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따라 늙기 때문일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몸이 힘이 빠지고 세상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마음이 먼저 늙어 버리니 몸이 금세 뒤따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이 활력을 찾게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 때부터 생기가 넘치고 몸도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것이 회춘 아닌가. 예전에 왕실이나 귀족들은 주로 젊은 남녀들과 어울리면서 이를 이루려 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 회춘은 케냐 땅의 지름길로 간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나이 많은 쪽은 나이 어린 상대를 만나서 젊을 때 왕성한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우치동물원에도 회춘의 혜택을 톡톡히 본 녀석이 있다. 단봉낙타 수컷이다. 혼자 살았을 때는 마치 병든 것처럼 기운도 없고 뼈뺀 말라진 녀석이다. 그런데 우리에 5년이나 어린 암컷이 들어온 뒤 달라졌다. 그날부터 그 암컷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더니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늙름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암컷도 좋았을까. 2년 마다 어김없이 새끼를 낳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저출산 대책 공기업도 동참해야

광주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3회(1회 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또 쌍둥이 가정에게는 50만원을 주고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게는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광주시의 대책을 보면서 재정 수입도 넉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국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다. 모 공기업 광주지사에 근무하는 형님은 3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가족수당을 3명까지만 준다고 한다. 본인의 부인과 자녀 2명만 해당되는 것으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 장려니, 저출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등 생색내기성 말은 그만하고 당장 이 같은 제도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김성근·광주시 북구 용봉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Publication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